

# NEWS LETT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지역교육협력학과

DEPARTMENT OF REGIONAL EDUCATION COOPERATION



교수논단

“지역교육 필요성의 논의 : 장소기반 교육의 관점에서”/김희경



재학생 기고문

한 학기를 보내며.. /이명희, 조효정



알쓸교원

알아두면 쓸데있는 교육 원리 이야기/공공성



행사 진행

제3차 교육연구소 콜로키엄/한국교육학회(강원지회) 학술대회



행사 안내

2021년 국립대학육성사업 SuperVision for Gangwon! 성과평가회  
(7월 3일 토요일 10:00-19:30, 고성 르네블루by워커힐)



교육연구소 알림

2021 Teach for Gangwon  
"강원도 중학생 기초학력 든든 프로그램"

<http://keri.kangwon.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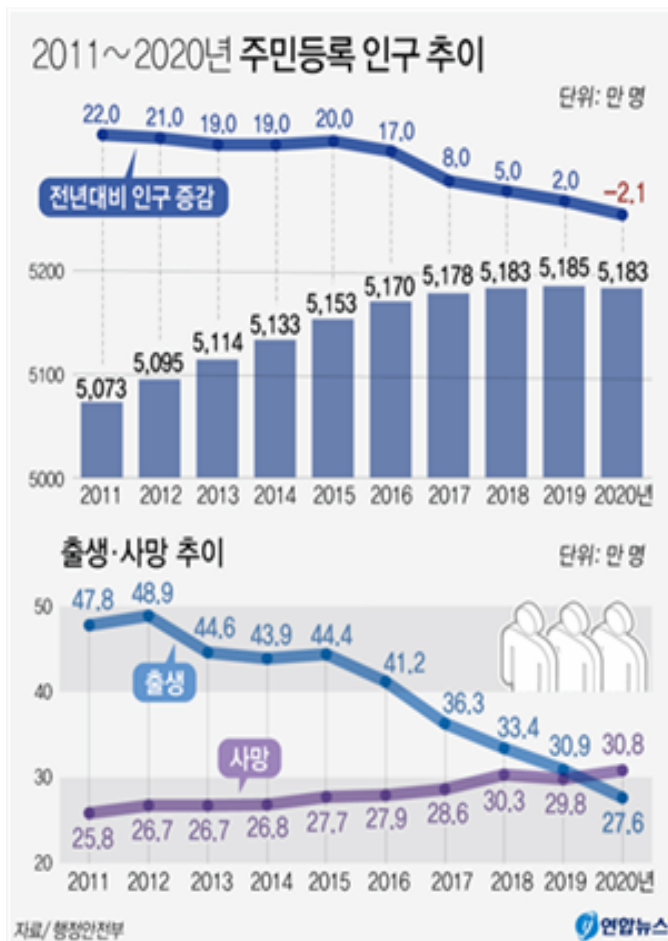


## 교수논단

# 지역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장소기반교육의 관점에서

김희경 (과학교육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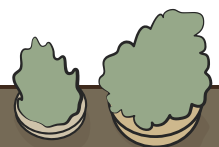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3조 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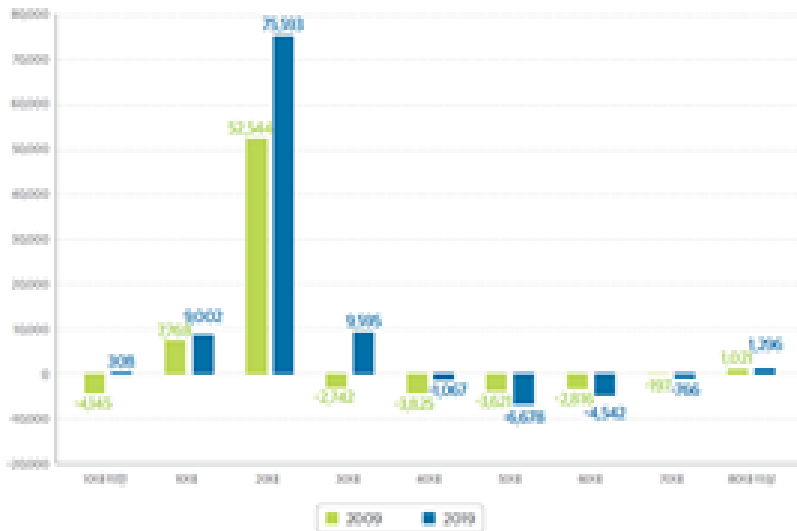
2020년 우리나라에서 사상 첫 인구 감소를 나타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성큼 다가온 인구절벽의 문제에 설상가상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2%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전국 기초지방정부의 46.1%가 30년 새 사라질 것이라는 지방소멸의 시나리오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체계적 연구를 통한 통계적 추정치이다.

나아가 더 심각한 것은 ‘누가’ 지역에서 이동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아래 왼쪽 그래프는 10년 사이 20대의 순이동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왜 젊은이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는 것일까?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는 아래 OECD국가 보고서에서 보여주는 웰빙의 지역격차이다(다음페이지 오른쪽 상단 그래프).

사진 출처: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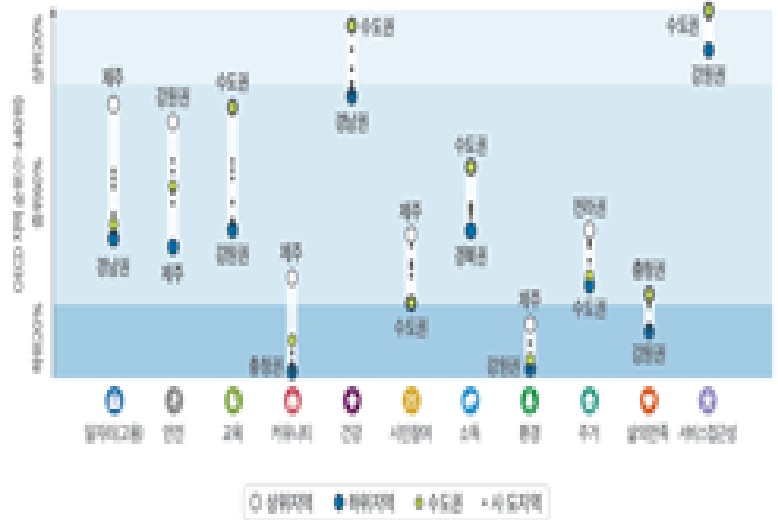


연방대별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이동(명)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연구이동통계

행정의 지역적 격차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강원권은 일자리, 교육, 환경, 삶의 만족 등 대부분의 요소에서 전국 최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결국 인구소멸위험지역 비중이 전체의 83.3%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춘천시의 경우에도 25개 읍면동중 21개가 지방소멸위험주의단계(2019)에 이르렀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20~30년을 내다보며 하는 미래지향적 행위인 교육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필자는 과학교육 전공자로서 지금까지 교육활동을 20년 동안 해오면서 요즘처럼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큰 때도 없었던 것 같다. 20년 뒤 이 지역에서 활동할 내 아이와 학생들은 무엇을 배워야 그들의 삶의 공간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 지역교육협력과는 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공동체이다. 아직 갓 태어난 공동체이기에 신생아처럼 다양한 세상과 방법에 대해 탐색하는 시기이지만,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융합적으로 힘을 합친 공동체이기에 그동안의 분절적 학문체계가 접근하지 못했던 방법이나 실천이 도출될 것으로 믿는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로서 개인적인 시도의 하나로 지역교육과 관련된 교육적 키워드를 탐구하고 있는데, 최근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과 장소기반 교육(PBE) 중 후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장소기반 교육(place-based education: PBE)은 학습을 위한 시작점으로 지역사회 및 총체적인 지역 환경을 활용하고 실제 세계에서 직접적인 학습 경험을 강조하는 교육법(Sobel, 2004)으로, 지속 가능한 세계를 촉진시키고자 일상적인 삶의 장소에서부터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접근법(Israel, 2012)이다.

이 분야에서는 장소와 장소감이라는 용어를 중시한다. 장소기반 교육에서 ‘장소’란 물리적 환경에 인간의 가치와 의미가 투영된 사회문화적 공간이 합쳐진 용어로서, 우리가 세계를 의미있게 만드는 방식이자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심승희역, 2012)으로 본다. 장소란 지리학에서 지표상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는 위치(location)를 나타내지만,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현장(locale)이며 장소감의 대상이기도 하다. 여기서 장소감(sense of place)이란 사람들이 장소에 가지는 주관적인 감정, 개인적인 정체성 그리고 집단적으로 느끼는 공통의 감정, 애착 등을 말한다(Agnew, 1987). 특히 장소에 대한 애착의 형성같은 감정적 단계를 넘어선 실천적 단계로서는 장소를 위한 참여와 희생, 헌신으로 발전한다(Shamai, 1991; Lalli, 1992). 따라서 장소감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장소에 대한 지식, 장소를 향한 애착, 장소를 위한 실천으로 인지적, 정의적, 실천적 영역이 모두 포함된다(김민성·윤옥경, 2013).

장소와 장소감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볼 때 지역교육협력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하나는 학습자들이 장소기반 교육을 통해 자신의 터전에 대한 장소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지역사회와 환경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삶의 장소에서 직접적인 문제해결과 탐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지역에 대한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공동체원으로서 자질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소양교육의 많은 부분은 누구나 알아야 할 기본적 소양에 대한 교육에 치중하면서 정작 학습자들이 자신의 일상적 삶의 장소에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 활동은 간과한 측면이 있다. 이제 장소기반 교육에서 주장하는 다양한 접근들, 예를 들면, 지역의 문화연구, 지역 자연환경 연구, 실생활 문제해결, 인턴쉽과 취업기회,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교육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의 지역 자율권 확대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중등교육의 변화들은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여 분절적이고 이론적이었던 교육의 방법을 지역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학문구조를 지역의 장소기반 교육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내용전문가, 교육전문가, 지역 전문가의 협업네트워크가 필수적일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서는 학문단위 연구를 벗어나 지역에 대한 총체적 시각을 바탕으로 융합적 연구를 수행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장소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소기반 교육자료의 개발과 현장적용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에서는 예비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장소기반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워주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장소기반 교육을 위한 교과, 비교과의 실행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사범대의 지역연계 노력(예: 강원대 지역교육협력학과, 지역교육사업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서두에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의무가 헌법에도 나와있음을 밝혔었다.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은 경제 한 분야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현재 지역소멸 사태를 통해 배운 교훈이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공동체 전체의 협력 네트워크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해진다. 우리 지역교육협력과의 구성원들이 이 네트워크의 중요한 구심이 될 것임을 믿으며 짧은 소견을 마치고자 한다.

# 한 학기를 보내며...

이명희 선생님

"시작해야 얻어지는 것들"

1학기 마지막 과제 보고서를 제출하려는 순간 망설였다. 이렇게 부족한데 제출해도 될까? 한 번 더 읽어보고 수정할까? 아니야 수정한다고 내용이 뭐 바뀌는 것이 있을까? 마음은 오르락내리락 그네를 뛰는데 내 손이 벌써 클릭하여 과제를 제출해 버렸다. 일단 마음은 시원하다.

떠나간 과제물을 뒤로 하고 머릿속에는 3월 개강하던 그 시간들이 떠오른다. 새로운 학과를 준비하면서 의욕이 넘치시는 교수님들, 자기소개를 과목마다 몇 번에 걸쳐야 하던 시간, 그 어색한 소개와 인사에 더욱 쑥스러워지는 나의 모습 등이 떠오른다.

1학기에는 4과목을 수강 신청하였는데 진정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이어져서 아쉬웠지만 신청한 과목 모두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 교육문제론 교과목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 문제의 유형, 원인 등을 공부했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각자의 관심이 있는 주제를 선정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이 과정에서 같이 공부하는 동기 선생님들의 열정을 보기도 하였다.

미래환경변화와 과학 기술혁신 과목에서는 평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과학 기술혁신에 따른 미래사회변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미래 교육에 적합한 지역교육의 방향성에 관해 공부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교육 및 지역 사회혁신 국제동향 수업에서는 관심이 있는 교육 및 지역 사회혁신의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해외 혁신 사례와 다양한 참고문헌들을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자료들을 찾아보는 과정은 자료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아. 마지막 과목은 문과생이었던 나에게 어려웠던 교육 및 사회혁신조사방법론이었는데, 교수님의 열정적인 수업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 수업이었지만 힘들었던 만큼 통계프로그램을 직접 활용해 볼 수 있었던 수업이었다.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와 특히 양적연구 방법을 위한 자모비 등 몇 개의 통계프로그램도 공부하였고,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울 수 있는 과목이었다.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을 새롭게 공부할 수 있었고, 부족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수업 시간, 모두 새로운 시작을 선택해서 얻는 것들이라 여겨진다.

학교를 떠나서 지역교육협력학과의 학생으로 시작한 새로운 시간들은 나중에 돌이켜 보면 우리에게 어떤 것들로 채워질지 궁금해진다.



# 한 학기를 보내며...

조효정 선생님

"조각 찾기"

교사 18년차.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교사로서의 경험들을 쌓아갔습니다. 교직 생활 초반에는 좀 더 깊은 학문 탐구에 대한 뜻을 갖고 있었지만 바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개인의 공부보다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교사의 역할 그 이상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 학습 방법이나 학생들과의 소통 등은 축적된 여러 경험들을 바탕으로 예전보다 향상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퍼즐의 한 조각이 맞춰지지 않은 듯한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왜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2020년 10월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의 면접 지도를 끝낸 저녁 무렵. 교무실에서 홀로 앉아 지역교육협력학과 지원서 작성에 몰두하게 된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21학번으로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전형적인 이과 출신이라 인문계열의 책과 논문을 익히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대학시절 교육학은 배웠으나, 그때는 임용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암기위주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임용고시에서 교육학은 과락을 겨우 면할 정도였기에 교육학을 공부해봤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교육 혁신과 지역교육협력 분야에서 관심 있는 주제 찾기가 너무 버거웠습니다. 분명 떨리는 마음으로 원서를 작성하면서 비워진 퍼즐의 조각을 맞추기 위해 대학원에 들어왔지만 제 앞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또한 같이 입학하신 분들도 교육계의 초보가 아닌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라 과제에 대한 결과물 질이 좋게 나오는 것을 보고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애들아~공부가 제일 쉽다.'라고 말했던 제가 부끄러워지면서 '공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강의수업 횟수가 줄어 제가 겪는 어려움을 대학원 동기들에게 말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대면 강의를 있던 날 공부의 어려움에 대해 '툭' 던지니 다른 분들도 힘들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봇물 터지듯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에 1학기 4과목의 발표와 과제를 나름 무사히 마친 것 같고, 힘들었지만 새롭고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복직 후에는 제가 더 얻은 퍼즐 몇 조각으로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제 교사 생활의 그림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아! 학생들을 다시 만나면 '공부하느라 힘들지'라고 딱 한 번만 위로해 줄 것입니다. ^^.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전투적으로 일하면서 논문의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으며 대학원 동기들과 '깨톡' 창에서 허심탄회한 심정으로 대화를 나눌 모습이 그려집니다.





# 알아두면 쓸데있는 교육 원리 이야기

## 공공성(Publicness)

박주병(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존 듀이는 "공공성을 찾아서"(Dewey, 1915/2014:12)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나누는 근원을 이렇게 제시한다. "인간 활동의 결과에는 직접적인 교류 당사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 전자가 사적인 것에 반해 후자는 공적인 것이 되고, 후자의 결과들을 통제하는 문제에서 공공성이 생겨난다.

이와 같은 철학적 개념은 교육에서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데에 나름의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교육 "바깥에서의" 공공성 담론은 그대로 교육장면에 이식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18세기 아나키스트들은 당시 막 싹트기 시작한 공교육제도, 국민교육 이념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내가 생각하고 내 취향을 가꾸고 내가 느끼는 일은 본래 개인적인 일인데(이것을 일본학자 우메네 사토루는 사사성私事性이라고 명명한다) 내 머릿속에 무엇을 채울지를 국가가 정하는 일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한 것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울지는 개인의 자유이겠으나, 그 채워지는 것, 또는 경험하는 것은 결코 자기만의 것으로(순전히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식이든 넓게 보아 경험이든 교육의 내용이 되는 것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사이(inter homines)에서 의미가 주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것들이다.

이러한 지식의 공적 특성이나 교육의 공적 특성을 가리켜 일부 학자들(나병현, 2002 등)은 "규범적 차원의 공공성"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에서 공공성(publicness)은 이러한 공적 특성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교육에서의 공공성은 근대사회의 산물이며(이선향, 2005: 10), 국가사무로 운영되는 공교육의 원리를 결정하기 위한 실천적 개념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 교육의 공공성은 어떤 실천적 문제의식과 결부되어 있는가? 무엇보다도 교육에 대한 공적 개입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깊다. 의무교육단계에서는 근대 공교육제도가 기회의 평등, 나아가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고 있는가를 놓고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크다. 고등교육단계에서는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자주성과 정부의 규제 정책 사이에서의 갈등때문에 공공성의 범위를 놓고 격론이 진행 중이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여 자체가 이데올로기적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교육이라는 공공재가 시장의 재화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국가의 관여를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입장도 있다.

어느 입장에 서든 다음의 세 가지 공공성 이론의 흐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이하, 이진권 2021 참조). 초기의 공공성 탐구는 조직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즉 조직이 정부의 소유인가, 개인의 소유인가에 따른 구분이었다. 이것을 소유권적 공공성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민영화된 국영조직, 민간 비영리조직이 나타나는 등, 조직이 공/사로 양분되지 않는다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규제적 공공성론으로 이행한다. 규제적 공공성론은 정치적 권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공공성을 정의하고 있다. 이 두 공공성이론은 공적 영역의 통제가 곧 규범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전제하는 데 반해서 최근의 규범적 공공성론은 "왜, 무엇을 위해 공적 영역을 통제해야 하는가"를 탐구한다(Bozeman, 2007). 그래서 이 공공성 이론에서는 공공가치의 달성과 공익적 이상을 지향하기 위해서 공공의 영역을 통제하는 것이 공공성의 핵심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QR 참고

# 지금 지역교육협력학과에서는

#6월행사 #지역과협력하는 #교육연구소

## 2021년 제3차 교육연구소 콜로키엄

- 일시** 2021년 6월 17일(목) 12시-13시 30분
- 장소** ZOOM 화상회의
- 주제** "ANT 모델 기반 창의교육의 운영 : 포항공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자** 박주홍 포항공대 IT융합공학과 교수/포스텍 융합건축혁신센터장

### 내용



Actor-Network Theory 모델을 기반으로 포항공대 1학년 창의교육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초·중등학교까지 이러한 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사범대학의 미래형 교육과정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QR 참고

# 지금 지역교육협력학과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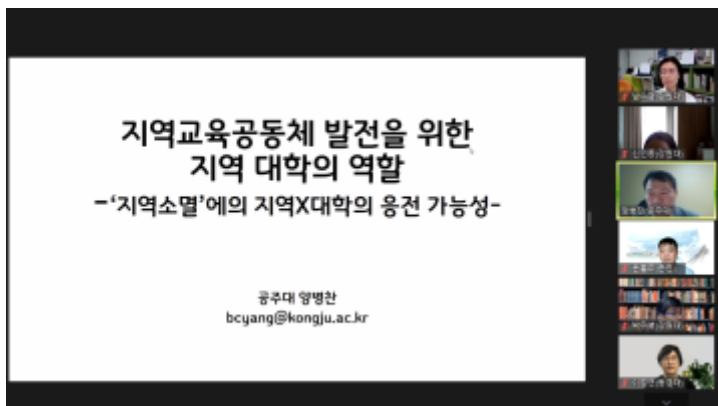
#6월행사 #지역과협력하는 #교육연구소

## 한국교육학회(강원지회) 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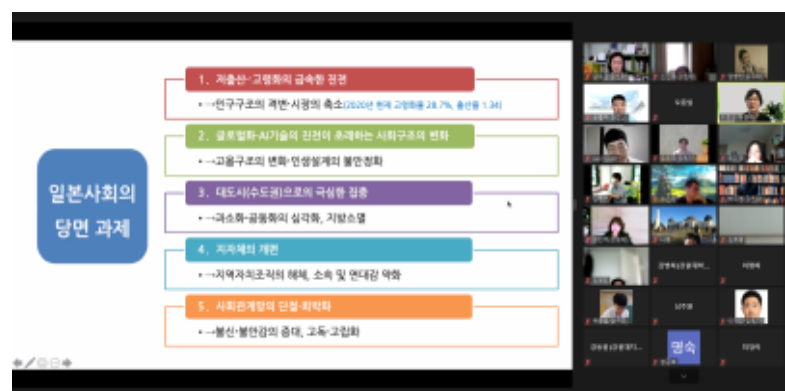
**일시** 2021년 6월 26일(토) 10시-12시

**장소** ZOOM 화상회의

### 1. "지역교육공동체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공주대 양병찬 교수)



### 2. "일본의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력: 나가노지역을 중심으로" (도쿄대 이정연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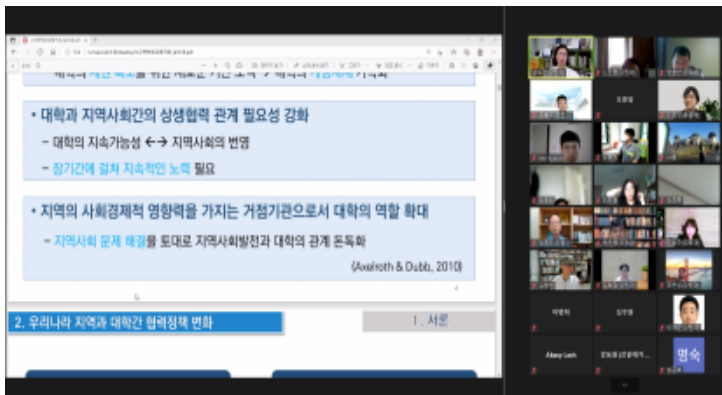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QR 참고

# 지금 지역교육협력학과에서는

#6월행사 #지역과협력하는 #교육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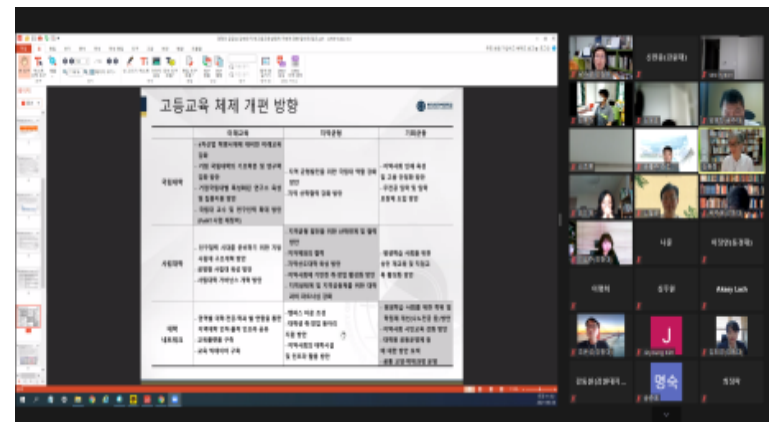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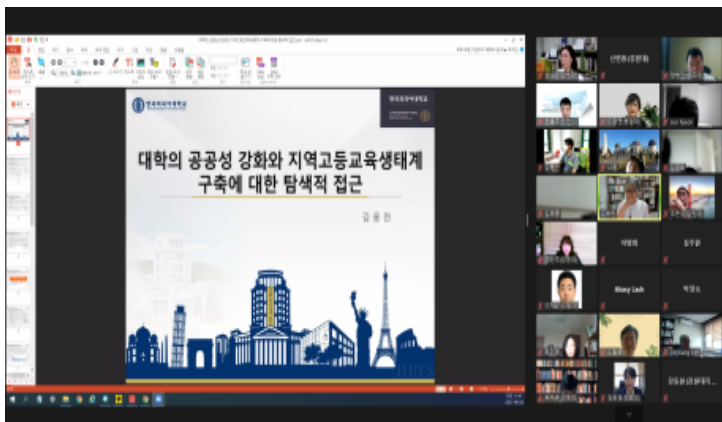
## 한국교육학회(강원지회) 학술대회

### 3. "새로운 교육 플랫폼: 대학원 지역교육협력학과의 발전 과제" (강원대 남수경 교수)



### 4.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고등교육생태계 구축에 대한 탐색적 접근" (한국외대 김용련 교수)

(한국외대 김용련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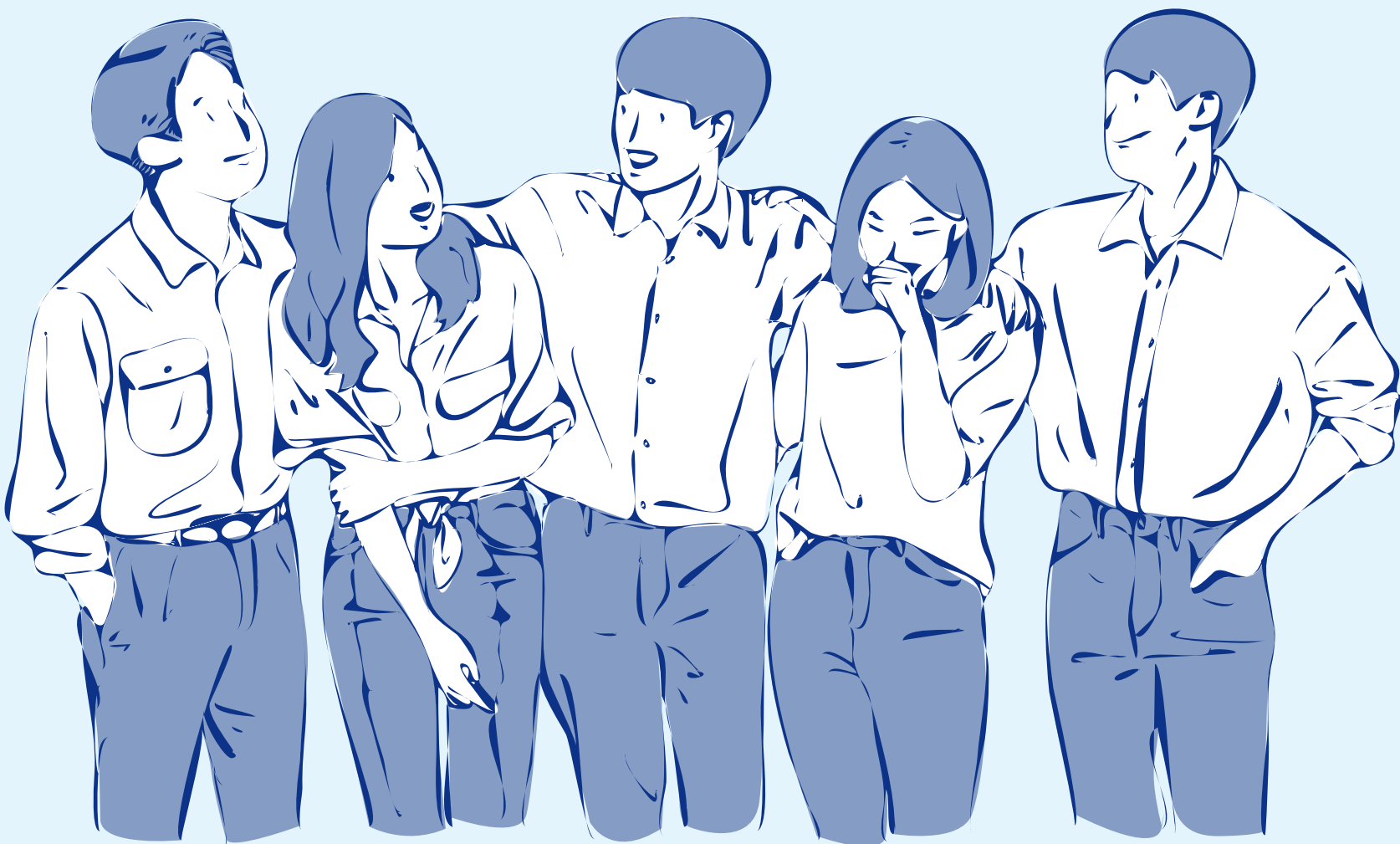
# 2021년 국립대학육성사업 SuperVision for Gangwon! 행복교육지구사업 컨설팅 성과평가회

| 2021.07.03(토) 10:00-19:00 |

**주 제** 컨설팅 사업평가회 및 강원교육 발전방향 모색

**장 소** 고성 르네블루by워커힐

**주 최**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대학원 지역교육협력학과



강원도 중학생의  
학력향상과  
진학 및 진로에  
대한 동기 부여

강원도 내 현장  
교사와 사범대 학생  
간 멘토-멘티 활동을  
통한 사범대생의 원격  
교육 전문성 강화

방학기간  
주기적  
학습지도로  
학업 태도 개선

강원대학교 사범대  
학생에게 지역사회  
교육봉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이해 및  
국립대 공공성 확보

# 2021

## Teach for Gangwon

“강원대학교 사범대학과 함께 하는  
강원도 중학생 기초학력 든든 프로그램”



### 지도 교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총 6개 과목



### 참여대상

기초학력 증진, 학업의욕  
고취, 학습태도의 형성 등이  
필요한 강원도 지역의 중학생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우선 선발)



### 멘토링 내용과 방법

교과목별 신청 상황에 따라  
멘토와 멘티 1:1 또는 1:3 수준  
소수 정예 맞춤형 원격지도

(1인 최대 2과목 선택)



### 참여 특전

교과에 대한 지도는  
“전액 무료”로 진행

1차 여름 방학 : 2021년 7월 21일 ~8월 8일 주 3회×2주 (총 12시간)

2차 겨울 방학 : 2022년 1월~2월 주 2회×6주 (총 24시간)

## 신청 방법

학교별로 중학생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별도 양식 (향후  
신청기간 및 양식은 공문으로 송부)으로 담당교사가 신청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학교의 소재지, 학교별 참가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대학에서 선정함  
여름방학에 선정되지 못한 학생은 겨울방학에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음

프로그램 운영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ZOOM)

\* 코로나19나 강원대학교의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진행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